

Come Sunday,
Prison Air

Thomas R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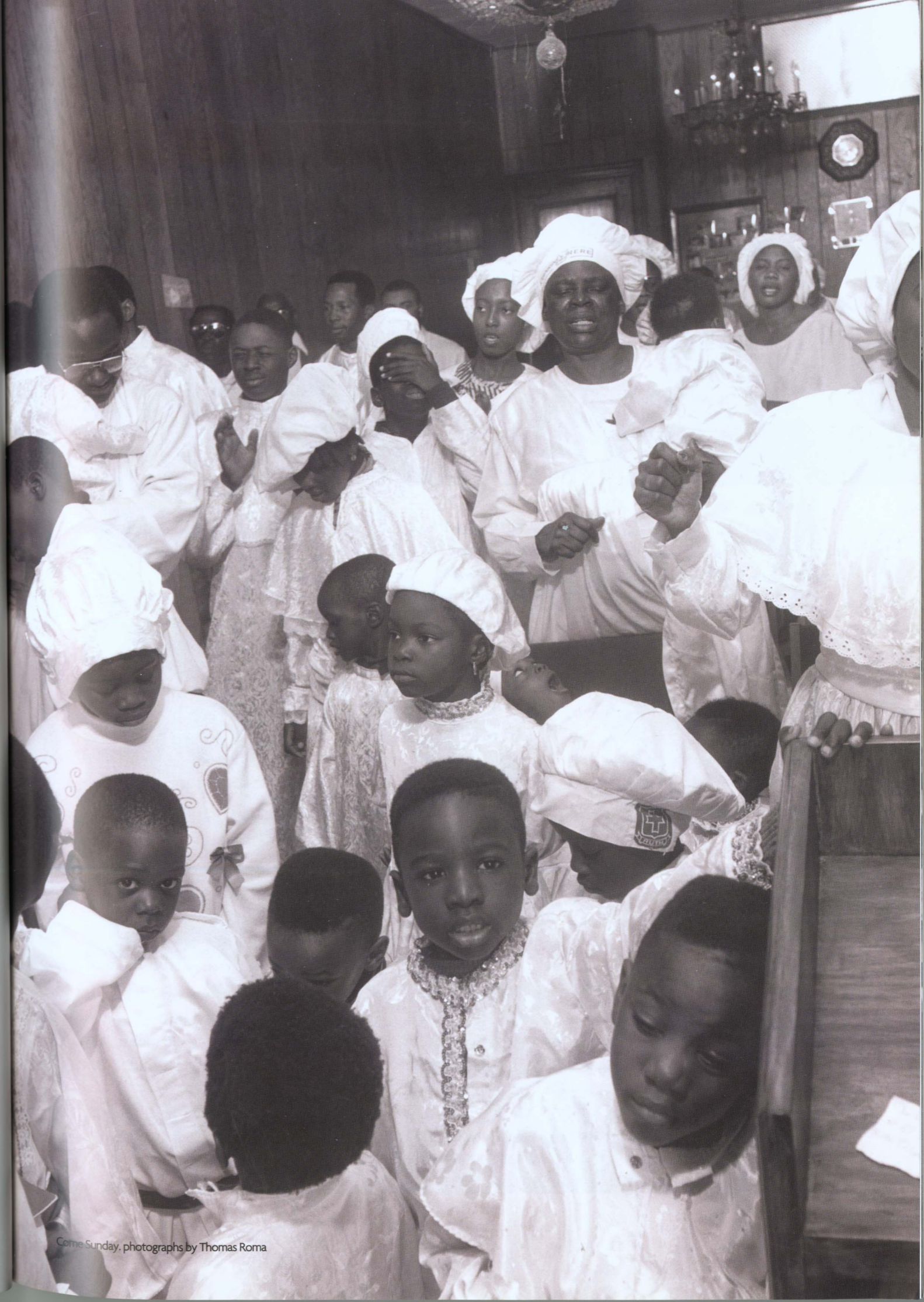
Come Sunday, photographs by Thomas Roma

토마스 로마(Thomas Roma)는 평생을 뉴욕의 브루클린에 살면서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사람들 또 장소들을 필름에 담았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유색인종들이며 그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다. 직접 만나기 전에 그의 작품만 보고 당연히 흑인 또는 다른 유색인종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의 스튜디오로 찾아가 필자에게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아 주는 이는 놀랍게도 50대의 백인이었다. 아직도 인종차별이 구석구석 존재하는 미국사회를 개탄스러워하며 자신이 신에게 받은 능력을 의미있는 일에 쓰고자 평생을 노력해온 그만의 삶의 철학이 인터뷰 내내 또 그의 사진 곳곳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출판된 여덟권의 작품집과 새로 출판되는 'The Prison Air'를 운 좋게 미리 볼 수 있었다. 금요일에서 사진가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계기를 제공해준 미국 사진이론의 대부이기도 한 존 자코우스키(John Szarkowski)는 여러차례 그의 작품을 소개하고 논평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뉴욕의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전시를 가졌고 구겐하임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그는 현재 브루클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자 사진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태혜성(아래 태) : 사진가가 되기 전에 뉴욕 월 스트리트의 증권가에

서 일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나?

토마스 로마(아래 토마스) : 월 스트리트에서 일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일 자체도 맘에 들었다. 안정되고 수입도 좋은 편이었다. 그러던 중 1969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두개골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 침대에 앉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눕지도 걷지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보다가 그대로 앉은 채 잠이 들곤 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창밖을 바라보는 일뿐이었다. 그때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위해 형이 자신의 카메라를 빌려주었고, 그 카메라로 창밖의 풍경을 찍기 시작한 것이 사진과 나의 첫번째 인연이었다. 그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직장으로는 복귀할 수 없는 상태였다. 병원을 다니는 시간 이외에는 안정을 취해야만 했는데,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맨 하단에 있는 작은 서점에 가게 되었다. 지금은 없어진 작은 서점인데, 그 서점은 당시 맨하탄의 서점들 중 가장 많은 사진서적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입원 중 사진을 접해본 후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진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헬렌 레비 등 많은 훌륭한 작가들의 사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중에서 존 자코우스키의 '사진가의 눈'(Photographer's eye)이라는 사진이론 서적을 접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책을 접한 후 본격적으로 사진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세상을 보는 시각과 사



Come Sunday, photographs by Thomas Roma



Come Sunday. photographs by Thomas Roma

진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월 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지만 머리를 다치고 난 후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전처럼 오랜 시간 동안 업무에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직장으로의 복귀를 잠시 뒤로 미루고 야간대

학에 나가 사진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한편 여러 사진가들의 사진집 등 사진관련 서적들을 접하면서 월 스트리트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월스트리트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지만 일단은 사진에 관련된 일을 해보면서 다른 분야를 접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렇지만 한번도 월스트리트의 직장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던 중 프랫 대학의 암실 기술자 자리가 비었다는 얘길 듣고, 아주 낮은 급여였지만 오래 할 생각은 아니

었기 때문에 쉽게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개리 워노 그랜드, 워커 에반스, 리 프리랜더 등 여러 훌륭한 사진가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남아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월스트리트를 떠나 나의 인생이 사진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었다.

태 : 구겐하임 지원을 비롯해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던 'Come Sunday'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어떤 작품이며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을 것 같다.

토마스 : 사실 'Come Sunday' 이전에 작업된 'Sanctuary'라는 작품집이 있다. 'Come Sunday' 보다 나중에 출판되었지만 이 작업은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 건축물들에 관한 작업이었다. 브루클린은 미국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곳으로 브루클린에서 평생을 살아온 나는 이곳의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촬영을 하다가 흑인들의 격렬한 시위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무고하게 파살된 조셉 호킨스라는 어린 흑인

소년의 죽음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백인인 내가 지나가려 하자 겁을 주며 나를 몰아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그후 나는 그 소년이 살았던 마을이 어떤 곳인지 호기심을 갖고 브루클린의 한 마을을 찾게 되었다. 그 마을은 주



Come Sunday. photographs by Thomas Roma

민의 대부분이 흑인이었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동네였다. 그 당시 나는 'Sanctuary'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작업을 '신의 일'(God's Work)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이 신의 일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며 나를 교회 안으로 초대했다.

그때부터 'Come Sunday' 작업이 시작됐다. 삼년 반 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단 한번 빠진 것을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찾아 모두 52곳의 교회에서 150번이 넘는 흑인들의 예식과 예배 등 의식을 촬영했다.



Come Sunday. photographs by Thomas Roma

Higher Ground. photographs by Thomas Roma





Come Sunday, photographs by Thomas Roma

태 : 백인으로서 흑인사회에 들어가 촬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토마스 :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했다. 그러다보면 그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게 되고 촬영에 도움도 많이 받는다. 인종문제는 특히 미국에서는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흑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는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직업을



Come Sunday, photographs by Thomas Roma

가질 수 있었고 아이비리그대학 강단에도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흑인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도 그치지 않은 인종차별 문제와 백인 특권사회는 미국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태 : 특별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자신 스스로가 종교가 있거나 특별히 종교에 관심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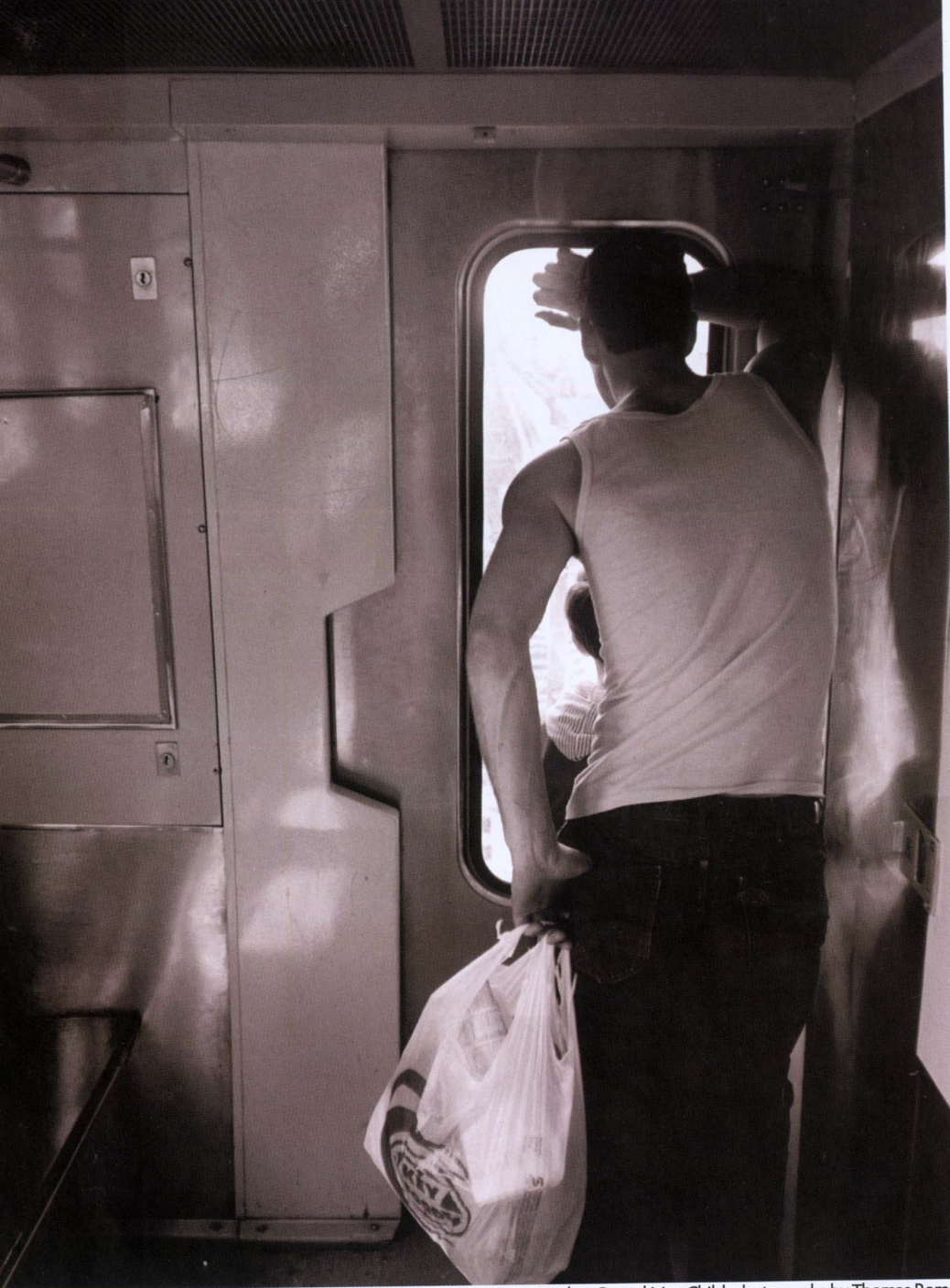
토마스 : 브루클린이라는 곳이 워낙 교회가 많은 곳인데다,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향도 있다. 언젠가 기도하는 내 모습에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항상 무엇을 바라고 이루기 위한 기도만을 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에 들은 아씨의 성인 성 프란치스코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돌을 모아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생각났다. 신을 통해 또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 살고 내 자신이 사진가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전(기독교 뿐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 성전 등 구분 없는 종교의 성전들을 찾아 다니며 그들의 종교예식을 카메라를 통해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에서 교회의 외관을 찍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조셉 호킨스 사건이 일어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후 가톨릭 성당으로 처음 세워져 이슬람 성전 등을 거쳐 유대교회로 바뀐 시네컬교회를 작업하기도 했다. 'Come Sunday'에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침례교 등 여러 개신교 교회들도 포함되어 있다.



In Prison Air, photographs by Thomas Roma



Higher Gound Man Child, photographs by Thomas Roma

태 : 신에게 받은 재능을 신에게 다시 바치고 싶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는가?

토마스 : (웃음)일주일에 딱 한번 바친 것뿐이다.

태 : 카메라를 직접 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토마스 : 그렇다. 나는 항상 내가 직접 만든 카메라만 사용한다. 모두 중형 카메라들인데 6x7이나 6x8 또는 6x9카메라들을 직접 만든다. 처음 월스트리트의 직장을 그만두고 저임금을 받으며 암실 기술자로 일하면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그동안 사들였던 카메라 장비들을 조금씩 팔아만 했다. 나중에는 35mm 카메라 단 한대만 남게 되었는데 고장이 날 때마다 프랫 대학의 기계 수리장에서 고쳐서 썼다. 그러면서 카메라에 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또 당시 브라세이가 6x9카메라로 찍은 'Camera in Paris' 사진을 보고 중형카메라의 성능을 부러워했는데, 여기서저 알아보았지만 출가 카메라 외에 6x9 카메라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출가 카메라에 렌

계 움직이며 조명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다. 허리에는 사십 파운드가 넘는 배터리 부스터를 달고 카메라 플래시로 조명을 조절했던 것이다.

태 : 카메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사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토마스 : 일단 기능에 관한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다. 나에게 카메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와 마찬가지로이다. 35mm 카메라는 바이올린과 같은 느낌을 주고 뷰카메라는 첼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음악가들은 좋은 연주를 위해 자신의 악기를 파악하고 연구한다. 색소폰을 부는 뮤지션들은 어떤 방법으로 공기를 불어넣는지 방법을 터득하고 첼리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악기의 역사까지 파악하며 악기를 다룬다. 이처럼 악기와 같은 카메라로 좋은 음악과 같은 사진을 만들기

즈를 부착시키고 이런 저런 방법을 시도해 보니 하나의 카메라가 완성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카메라를 만드는 일은 너무 어려웠고 그렇게 어려우니 미리 알았더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놓았고, 무언가 한가지를 시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어렵게 카메라를 완성 할 수 있었다.

태 : 평소에 기계에 관심이 많은 편인가?

토마스 : 그렇지 않다. 관심이 별로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다. 일단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뿐이다. 지금도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내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카메라 만드는 일을 시작해서 결국에 만들어낸 것처럼 모르는 상태에서 고생하며 얻은 경험이 소중한 오래가지, 뭔가를 너무 많이 알거나 안다고 생각하면 일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워지고 만다.

태 : 카메라 외에 다른 장비들도 직접 제작하는가?

토마스 : 'Come Sunday'를 작업할 당시 어두운 교회 안에서 많이 움직이며 작업해야 했다. 더욱이 넓고 어두운 교회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조명을 같이 맞추기란 하나의 조명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영화촬영 때 쓰는 조명의 원리를 응용해 카메라 위에 봉을 달고 네 개의 플래시를 매달아 카메라와 조명이 함



Show And Tell, photographs by Thomas Roma

위해서는 더 자세히 카메라를 파악해야 하는 건 나로서 당연한 일인 것 같다. 물론 규모가 큰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작업하며 촬영에만 주력하지만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작품 성향과는 많이 다르다. 나는 사진가라는 존재 자체를 어떤 팀의 한 멤버보다는 영혼과 교감하는 독립체라고 말하고 싶다. 사진가에게 있어서 협력의 대상은 매체(카메라)라 세상뿐이다. 'Come Sunday' 촬영을 위해 나는 200곳이 넘는 교회들과 접촉했지만 단 50곳에서만 촬영을 허락받았다. 세상과 부딪히면서 실패를 경험해야만 성공을 위한 의지도 굳어질 수 있는 것이다.

태 : 작업의 대부분이 태어나고 자란 브루클린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에게 일부러 미국적인 이미지를 찾아다니며 찍지 않도록 권유한다고 들었다. 친근감이란 당신의 작품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토마스 : 친근감이라고 말할 순 없다. 내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은 내 집 앞문에서부터 불과 몇 백 피트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매년 사진을 찍고 밀착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다른 이미지들에 항상 놀란다. 학생들에게 미국적이고 색다른 사진만 추구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이유도 아주 간단하다. 사진을 시와 비교하면 시인이 주제를 잘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사진을 찍으며 생각하는 단 한가지는 사진이 보일 수 있는 의미이다. 어떻게 한편의 아름다운 시를 써낼 수 있는지, 그 시가 어떤 의미

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다. 사진은 우리 인생에 대한 유적인 표현이다. 나는 매학기가 시작되면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몇명이 일기를 쓰고, 몇명이 시를 쓰느냐고. 그러면 절반 정도의 학생이 손을 든다. 마지막으로 연애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으면 한번에 한 두명 정도가 손을 든다. 모든 질문이 끝나면 나는 학생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자기가 쓴 일기나 시 또는 연애편지를 다시 읽어 보고 오라고 이야기한다. 일기와 시, 연애편지를 쓰고 훗날 그것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하다. 자기가 몸소 경험하며 자신의 생활 안에서 받은 영향들이 바탕이 되어야 의미 깊은 한편의 시가 만들어 지듯 사진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자신이 지금껏 보아온 것들과 다른 것을 찍는 것은 이색적이어서 끌릴 수도 있겠지만 주제나 대상을 잘 모른 채 어떻게 그 사진을 통해서 보는 이들에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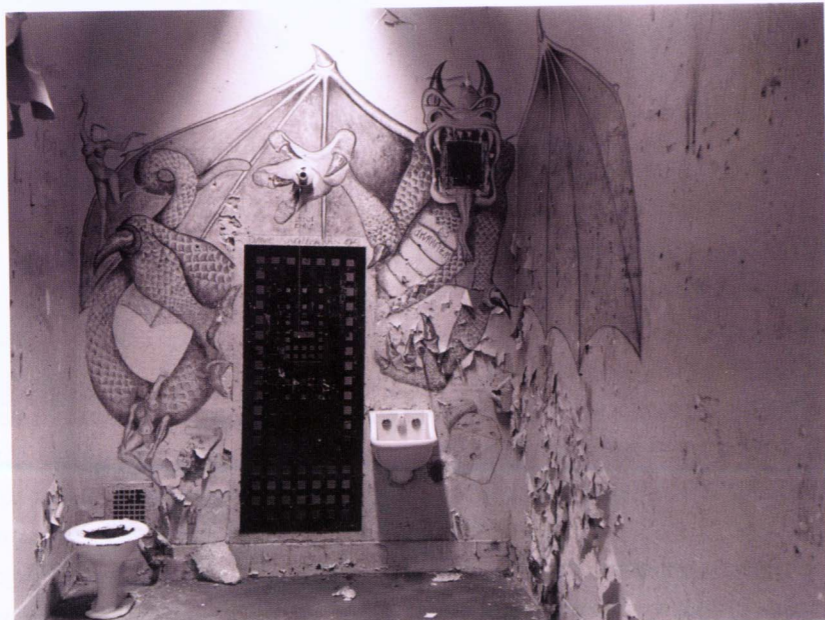
태 : 작품집 'Show and tell' 시리즈는 제작과정의 특이하다. 아홉 살된 아들에게 작품을 선정하고 글을 쓰게 했다는 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가?

토마스 : 친구였던 게리 위노그랜드를 비롯해 여러 지인들이 50대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나 역시 50살이 되었을 때 진지하게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죽음이란 자체에 두려움은 없었지만 이제 아홉살에 불과한 나의 아들이 아버지께 관해 얼마나 알려져



던 기억을 갖게 될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아들이 나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해줄까? 나는 아들이 나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해주길 원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든 사진들을 나와 아들 사이에 개입

시켰다. 지금은 열네살이 된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알아서 고르게 하고 무엇이든 그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도록 했다. 그 다음 아이를 사진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으로 데리고 가서 어떤 사진집이든 맘에 드는 책을 고르도록 했다. 아들은 워커 에반스의 책을 골랐고, 나는 그 책과 같은 사이즈로 작품집을 디자인해 'Show and tell'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 아이디어는 존 자코우스키가 쓴 'Looking at photograph'에서 영감을 얻



In Prison Air. photographs by Thomas Roma

었다. 존은 내 사진 인생에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며 그가 여러 사진에 대해 글을 썼듯이, 내 아들에게 내 사진에 관한 글을 쓰게 한 것이다.

태 :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작업이 있는가?

토마스 : 'The prison Air' 라는 제목으로 조만간 새로운 작품집이 출판된다. 헬렌 레빗의 작품집을 디자인한 마빈 호시노가 디자인하고 존 자코우스키가 작품소개를 해주었다. 이 작품집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금은 폐쇄된 교도소의 벽에 수감자들이 써놓은 시나 그림

들을 필름에 담은 것이다. 출소를 꿈꾸는 수감자들이 벽에 써놓은 시나 그림들은 무척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다. 죄수들은 나름대로 집에 있는 것 같은 아늑함을 느끼기 위해 이런 흔적을 남겼던 것 같다.

태 : 모두 자연광을 이용한 사진인가? 내부가 무척 어두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노출을 맞출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토마스 : 모두 자연광으로 촬영됐고 실내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장시간의 노출이 필요했다.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30분 넘게 노출을 주었다.

태 : 그렇게 어두운 장소라면 노출계를 이용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정확한 노출을 알 수 있었는가?

토마스 : 처음엔 노출계(light meter)를 가져갔지만 너무 어두워 소용이 없었다. 단지 여러번 시도를 통해 노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고 같은 장소를 여러번 다니면서 촬영하다 보니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 나중에는 그저 셔터를 맞추어 놓은 후 카메라를 두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멋진 사진이 만들어지곤 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진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론이나 작가의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진이란 사진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다.(웃음) 이렇게 카메

라 혼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태 : 어떤 사진이 나오리라는 기대나 추측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토마스 :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작품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진을 통틀어 하는 이야기이다.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사물을 볼 때나 사진 자체를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어만 보고 한 번도 직접 그 음식을 요리해 본 적이 없다고 치자. 그러다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기억을 떠올려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면 같은 맛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번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맛이 나온다. 사진도 요리와 같은 이치가 아닐까? 어떤 기대나 추측보다는 자신의 평소 경험과 관찰에서 습득된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사진가가 어떤 피사체나 빛에 의해 느끼는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 필라델피아에서 'Prison Air'를 작업하게 된 동기 또한 이 점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처음엔 이 폐쇄된 교도소를 재미삼아 찾았지만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 다음에 다시 혼자 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사진에 대한 나의 감각으로 주변환경을 감지한 것이다. 그 후 그 장소를 다시 찾았지만 처음 몇 번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찍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감각과 여러차례 같은 장소를 찾으면서 시도하고 터득한 방법들이 모여 이런 사진이 만들어졌다.

태 : 현재 콜롬비아 대학의 사진과 교수이자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자신의 교육철학이 있다면?

토마스 : 나는 학생들을 나의 동료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새로운 사진을 찍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 학교에서는 기초 사진과목부터 대학원 수업까지 여러가지 수업을 하는데 수업 때마다 초점을 맞추는 내용은 항상 한가지이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진 찍는 이가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나 상황이 이미지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태 : 여러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다. 한국의 월간사진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토마스 : 문명의 발달로 이제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내 아들은 인터넷으로 한국인들과 체스게임을 하며 논다.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보며 공감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 흐뭇하다. 즐거운 인터뷰였다. 월간사진에 감사하다. □MP

글 | 태혜성객원기자, 디자인 | 박정범기자



In Prison Air. photographs by Thomas Roma

THOMAS ROMA

| SOLO EXHIBITION |

- 2005 Sicilian Passage(Blue Sky Gallery, Portland, OR)
- 2002 Thomas Roma(Galleri Brandstrup, Oslo, Norway)
- Enduring Justice(Blue Sky Gallery, Portland, OR)
- 2001 Thomas Roma's Brooklyn(Brooklyn Public Library, Grand Army Plaza, Brooklyn, NY)
- Seen and Unseen(Ariel Meyerowitz Gallery, New York, NY)
- Enduring Justice(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Miami, FL)
- 1998 Intimate City: The Photographs of Thomas Roma(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New York, NY)
- 1997 Come Sunday(Center for Documentary Studies, Duke University, Durham, NC) 그외 다수

| GROUP EXHIBITION |

- 2005 Collection Galleries: Re-Opening Exhibition(MOMA, NY)
- 2004 Pool Party(Yossi Milo Gallery, New York, NY)
- 2003 Looking at Photographs: 125 masterpieces from The Museum of Modern Art(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Russia and The State Pushkin Museum of Fine Arts, Moscow, Russia) Sicily: A Day in the Life(The Brooklyn War Memorial Gallery, Brooklyn, NY)
- The 'ing' Show(The Ariel Meyerowitz Gallery, New York, NY)
- Summer Life(Alice Austen House Museum, Staten Island, NY)
- Sylva, A Tree Show(The Ariel Meyerowitz Gallery, New York, NY)
- powerHouse Gallery Launch(powerHouse Gallery, New York, NY)
- 2002 Life in the City(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NY) 그외 다수

| BOOKS / MONOGRAPHS |

In Prison Air, PowerHouse Books, Inc., introduction by John Szarkowski(2005) / Sicilian Passage, PowerHouse Books, Inc., introduction by Sandra Phillips and arterward by Anna Roma(2003) / Show & Tell, PowerHouse Books, Inc., essays by Giancarlo T. Roma(2002) / Sanctua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introduction by Henry Louis Gates, Jr.(2002) / Enduring Justice, PowerHouse Books, Inc., foreword by Norman Mailer, introduction by Robert Coles(2001) / Higher Ground, D.A.P./I.C.P., introduction by Ian Frazier(1998) / Sunset Park,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1998) / Come Sunday, MOMA/Abrams, introduction by Henry Louis Gates, Jr.(1996) / Found in Brooklyn, WW Norton/DoubleTake, introduction by Robert Coles(1996) Awards/Honors Virginia Center for the Creative Arts Award for Excellence in the Arts(2005) / New York City Council Proclamation for contributions to cultural and educational life of New York City(2003) / Golden Light Book Award, Found in Brooklyn(1996) Selected Permanent Collections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NY / The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CA /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CA /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 / The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NY / The 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Montreal, Canada / Center for Creative Photography, Tucson, AZ / Henie-Onstad Museum, Norway /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TX / The Jewish Museum, New York, NY / The Seagram's Collection, New York, NY / The Dreyfus Collection, New York, NY / Camera Works, New York, NY / The Portland Art Museum, Portland, OR